

7
白川趙氏大同世譜卷之首

西紀一九九四年 甲戌 十二月 二十日 印刷
西紀一九九五年 乙亥 三月 三十日 發行

發行者

白川趙氏大同世譜發刊委員會

會長 趙昌錫

編輯者

白川趙氏大同世譜編纂委員會

委員長 趙希濬

發行處

白川趙氏大宗會

서울特別市道峯區彌阿洞九〇一三六

電話(〇二)九八六—九〇七〇

印刷處

서울特別市鍾路區平倉洞一五〇—一

複不
製許

(株) 畢 呂 出 版 社

電話(〇二)三九六—三六三〇—四

FAX(〇二)三七九—四二五二

印刷人

代表理事 李永成

(三) 碑碣銘

1、恭和公諱之遴神道碑銘 并序

東方自殷師變夷之後神州舊族來居傳世者多焉至高麗成宗穆宗時有以中國天王之孫入于朝廷仕至上公爲國金湯後昆萬千者我始祖恭和公府君諱之遴字撰叔是也府君趙姓大宋太祖皇帝長子魏王諱德昭之第三子也太祖賓天太宗即位有剪除魏王膝下之志府君明炳禍機潛行出境東渡鴨綠至于銀川縣都台里居焉即麗家景宗四年也始事成宗繼事穆宗顯宗官至左僕射參知政事卒諡恭和由是子孫世貫銀川自登大位盡誠奉公內修政理外使契丹要以四國是廼爲心良亦古所謂幹臣之才也年代深遠文獻不足其經綸計策雖不可詳於青史之編君子之論而略以麗史所見八朝履歷參互酌量則府君一生成就實不外於靖國安民之道矣在昔中州五季之際陰邪滿地壞亂到極天既厭亂誕降宋太祖皇帝保祐命之奄有九有救赤子於塗炭闡綱常於既墜天之愛人可謂甚矣但於革命之事或不無從儒之議論然論其德則實三代以下初出之聖主也府君以其氣脉所傳仁心積於中規模垂於後門內子姓濟濟忠賢有若門下侍中諱良裕太子太師文靖公諱先正太子太傅康懷公諱仲璋國子祭酒文成公諱玉兵部尚書忠武公諱文胄衛社功臣正議大夫正憲公諱璈其弟門下侍中敬烈公諱珍實府君子孫曾玄五六代孫也其文學忠節勲業大著一時有衛安社稷之功又有正肅公諱瑄休休堂諱雙重以文章德行俱顯當世及至本朝有若肅魏公諱胖文烈公重峰先生諱憲文孝公樂靜諱錫胤皆府君之後孫也肅魏公則忠節勲業彰于三韓文烈公則道德節義宗師百世文孝公則經術文章模範士林其他名儒碩輔著節一世恬靜老成者旣庶且蕃蓋府君之降也毓精氣於前而適值邦政多難之日以滿腔仁善一生蓄積惟在於利國濟物而天地鬼神臨之在上質之在傍無微

不燭故其間世英豪之出於子孫如此其盛以此觀之益見其府君德業之遠矣可謂上有所必而下有所授矣詩曰豈弟君子福祿攸降豈不信然矣哉夫祖先之有德業可述而子孫無聞無誠不能闡揚其實者固足爲罪而若於造辭之際懷私忘義稱道溢實者尤非所謂尊敬先祖也不亦懼哉鍾益爲是兢兢不敢輕下一字也府君之蹈海在於高麗景宗時而其後康獻太祖之應天順人自今追計已過五百載矣中間風塵之作萬姓之禍又不知幾次矣府君幽宮之失而不傳必緣雲仍之一時削弱而致矣悠悠蒼天曷其有常痛恨之餘繼之以罔極耳曾於數十年前後孫軫在鍾夏鍾殷并心宣力謹依尤菴宋先生已行之例即府君遺墟之東占一小邱設望墓之壇兼樹短碣而用數畝之入歲一奉香矣至于昨年庚申冬肅魏公嗣孫鍾和大會諸宗爛漫共議立約鳩財將欲增益張大而迨夫今春頭緒略定必欲先刻神道之碑自大宗中屬筆於鍾益不敢終辭謹構文爲銘而獻之銘曰

惟我府君中華玉葉適值運否翔于東國芳馨四達名聞丹闕揚于王廷誠盡力竭內扶天日外撫強狄名隆功成遂躋台爵皇天眷佑子孫萬億誰其顯者巍巍賢傑考槃之阿一壇特立蘋藻何時霜露降節白水滔滔青山嶺嶺伏惟英靈默垂陰騭牖我遺裔俾全天德兼鼓潛陽清我八域

後孫 鍾益 謹撰

譯 文

殷나라의 太師箕子가 오랑캐 風俗을 變化시킨 뒤부터 우리나라에 中國의 옛 風속들이 와서 代를 물려서 는 사람이 많았으니, 高麗 成宗·穆宗때에 이르러 中國 天子의 孫으로서 朝廷에 들어와 벼슬이 上公에 올랐던 사람도 한 사람(金城湯海)을 만나는 後裔가 數없이 많았다.

우리의 始祖恭和公府君의 諱는 之邁이시고 字는 撰叔이시다.

府君의 姓은 趙氏이고 宋太祖皇帝의 長子 魏王 德昭의 第三子이시다. 宋太祖가 別世하고 太宗이 卽位함에

魏王 子孫들을 除去하려 하여 恭和公 府君께서 禍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숨어서 國境을 넘어 東岳 鴨綠江을 건너 銀川縣(白川) 都台里에 이르러 사셨으니 高麗朝 景宗 四年의 일이다.

처음 成宗을 섬기고 이어 穆宗과 顯宗을 섬겨서 벼슬이 左僕射參知政事에 이르렀고, 別世하시니 諡號는 忠和이다. 이로 인해 子孫이 銀川(白川)을 貫鄉으로 하였다. 큰 벼슬에 오르시어 至誠껏 奉公하고, 안으로는 政事를 잘 다스리고 밖으로는 契丹으로 使臣가셔서 四方의 나라와 心交를 두터히 하는 것에 努力하였으니 진실로 예전에 이르는 幹臣의 材質이다.

年代가 오래되고 文獻이 不足하여 그 經綸과 計策은 비록 靑史와 君子의 論에 詳細하지는 않으나 大略 高麗史에 나타난 入朝의 履歷을 參酌하여 보건대 恭和公 府君의 一生에 成就한 것은 참으로 나라를 安定하고 百姓을 平安히 하는 길외에는 없었다.

예전 中國 五季(唐後宋 前)에 있던 다섯 나라 때 陰하고 奸한 기운이 땅에 차고 紀綱이 무너지고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니 하늘이 그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여 宋 太祖皇帝를 내리시어, 하늘이 도와 中國(九有) 全域을 所有하게 하여 百姓이 塗炭에 빠진 것을 구하고 이미 땅에 떨어진 三綱五常을 바로 잡으니 하늘이 사랑하는 것이 가히 크다 하겠다.

다만 革命(開國)한 일에 대해 從儒의 評이 없는 바는 아니나 하지만 그 德을 論한다면 실로 三代(夏·殷·周)에 걸쳐 처음있는 聖主이다.

府君께서 그 氣脈을 전해 받아 어진 마음이 몸에 배이고 範節이 뒤의 模範이 되어 門內 子孫에 忠賢들이 많고 많으니 門下侍中 諱 良裕와 太子의 太師 文靖公 諱 先正과 太子 太傅 康懷公 諱 仲璋 國子 祭酒 文成公 諱 玉과 兵部尚書 忠武公 諱 文育와 衛社功臣 正議大夫 正憲公 諱 璈와 그 아우 門下侍中 敬烈公 諱 珍은 실로 恭和公 府君의 아들, 손자, 증손, 현손, 五·六代 孫이시니 그 文學과 忠節과 勲業이 한때 크게 나타나서 社稷을 護衛하고 安定하는 功을 세웠고 또 正肅公 諱 璵와 休休堂 諱 雙重 같은 분은 文章과 德行을 當世에 드러낸 분이었고,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肅魏公 諱 胖과 文烈公 重峯 諱 憲과 文孝公 樂靜 諱 錫胤과 같은 분은 다 恭和公 府君의 後孫이시다.

肅魏公은 忠節과 勲業을 나라안에 떨쳤고 文烈公의 道德과 節義는 百世에 으뜸가는 師表이시고 文孝公의

經術과 文章은 士林의 模範이 되었고, 其外에도 名儒와 碩輔와 節義가 一世에 顯저한 分과 心性이 安靜되어 圓熟한 人物이 많고 많았다. 무릇 恭和公府君이 降世하실 때 精氣를 앞에서 받았으나 마침내 其 聲사가 어 지러운 때를 당하여 몸매에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一生을 살고 살은 것이 오직 나라를 위하게 하고, 經世 濟民 하는데 있었으니 天地神明이 위에서 임하시고 옆에서 밝히시어 아무리 隱微한 곳이라도 밝히지 아니함 이 없는 고로 그 동안에 子孫에서 난 英雄과 豪傑이 繁盛했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 모두가 府君의 德業이 遠大 함을 알겠고 可히 위(祖先)에 기필한 바 있어서 아래(後孫)에 尊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詩經에 이르기를 端雅한 君子의 福錄은 오래 오래 내린다 하였으니 어찌 진실로 그러치 아니하오리 대저 祖先에게 德業이 있으면 記述해야 함에도 子孫이 드문바 없고 誠意도 없어 그 事實을 밝히고 드높이 지 못한다면 진실로 罪가 될 것이며 萬若 글을 지을 때 私心을 품고 義를 忘却하여 事實을 誇張한다면 이는 더욱 先祖를 尊敬하는 일이 아니니 또한 두렵지 아니하겠는가

鍾益이 이때문에 마음을 조리고 감히 글자 하나도 경솔하게 쓰지 못하는 바이다 恭和公府君께서 이 나라 에 오신 것은 高麗 景宗때 었으나 그 후 康獻(朝鮮) 太祖의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게 따름은(開國) 지금으로 보 터 생각해 보건대 五백년이 지났으니 그 간 나라에 어지러운 일과 百姓의 禍亂은 몇 차례나 되었든가 恭和公府君의 墓所가 失傳된 것은 반드시 後孫의 一時 忒戾했던 所致이니 푸른 하늘 아래 어찌 變遷하디 하였는가 가슴 아픈 나머지 계속할 말이 없다.

일찌기 數十年前에 後孫 軫在·鍾夏·鍾殷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미 尤庵 宋先生이 행하신 예에 따라서 恭和公府君의 옛터 東쪽 작은 언덕에 자리잡아 望墓壇을 만들어 작은 碑石을 세우고 몇 이랑에서 드러오는 收入으로 每年 奉香해 오다가 昨年 庚申年 겨울에 이르러서 肅穆公嗣孫 鍾和가 모든 宗親을 모아 熟議한 끝에 財物을 모아서 장차 擴張할 것을 約束하고 今春에 이르러 頭緒를 定하는데 먼저 神道碑를 세우 기로 하고 大宗中에서 鍾益에게 글 지을것을 부탁하니 감히 끝내 辭讓할 수 없어 글을 지어 記述해 바치니 銘에 이르기를

우리 府君께서는 中國의 王孫으로

마침 運이 비색해 東쪽 땅에 오셨네

이름이 四方에 떨쳐 글안(契丹)까지 들렸고

王廷에 드날릴새 誠心으로 힘 다하니

안으로 임금들을 돕고 밖으로 強狄을 무마했네

공이 뒤 이름높아 드디어 큰 벼슬하니

皇天이 도와 子孫이 萬億이다.

그 누가 나타냈는가 우뚝한 賢傑이다

오르내리던 언덕에 한 壇을 모았으니

祭祀는 어느 맨가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절기라고

맑은 물이 도도히 흐르고 靑山은 높고 높도다

영도려 바라옵나니 尊靈이시여

부복히 陰德을 드리우사 後孫을 밝히시사

하늘의 德을 온전히 하고 겸하여 肅은 君子를

고무시키

우리 세상을 밝게 하소서.

後孫 鍾益 謹撰

2. 敬慕祠廟庭碑銘 并序

根深之木은 葉茂요 源遠之水는 流長이라, 我東의 白川趙씨는 其先이 自 高麗朝 臣恭
和公 諱之遼으로 爲始하니 東來名家요 崇德勳門이라, 代代世德이 邦內風化에 報畀爲大
하고 源遠道學에 名節이 또한 竹帛에 垂昭터니 奧昔龍蛇에는 文烈公 諱憲先賢의 立國
樹節로 그 忠孝大聲이 드디어 邦內天下에 大振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 由來故原은 北方
의 坎域속에 斷絶되어 白川舊基는 瞻望조차 杳然한지라 안타까운 後昆들이 悚懼한 風

泉之思를 모아 孤寂하심 故原의 先祖九位를 받들어 이곳의 새 妥靈之所에 모시니 이 또한 源遠한 忠孝遺風이요 晦寒令世를 밝히는 風化의 새 龜鑑이라 이에 追遠報本의 그 뜨거운 香動에 感化된 한 後學은 荒蕪도 잇은 채 감히 微忱의 빛을 들어 그 前後의 景行高蹟들을 여기 적음으로써 千秋在後의 보다 밝은 丹青을 期待하려 한다.

七世 諱珍 高麗元宗時 白川에서 生하여 東朝에 文科及第하니 官은 銀紫光祿大夫 三重大匡門下侍中에 이르렀다. 行省에 掾의 職에 있던 忠烈王 二十三年에 元에 賀正使로 往還하였으며 老年에 昏耗로 官職을 辭함에 國王은 在家聽政을 許하였다. 峻望과 勳勞로 白川候에 封하여지고 敬烈公의 贈諡가 내려졌다.

八世 諱子龍 號는 台村이니 高麗忠烈王朝에 文科及第하여 官은 金紫光祿大夫 三重大匡門下侍中에 이르렀다. 立朝時에는 廉潔清直으로 盡誠行公하다. 晩年에는 鄉第에 隱退하여 後進敎誨에 一生盡力하니 그 風化는 邦內一域에 藉藉하였다. 文章과 道德이 함께 當世의 師範이었으며 文簡公의 贈諡가 내려졌다.

九世 諱瑄 高麗忠肅王朝에 文科登第하니 官은 金紫光祿大夫 檢校侍中에 이르렀다. 忠肅王의 元京入留時 公이 侍從官으로 從王하여 元朝의 巨儒重臣들과 交遊하니 上下推重속에 官이 元의 尚書左僕射 國子祭酒에 이르렀다. 不幸히 萬里 異域에서 卒함에 元의 朝野는 모두 그 奇絶偉人의 品格을 哀悼하였고 海路로 運柩하여 康翎縣亥島에 禮葬함에 忠肅王은 遣禮官具吊祭의 儀를 다하였으며 뒤에 正肅公의 贈諡가 내려졌다.

十世 諱成柱 正肅公의 長子로 弟天柱로 더불어 同年登第하니 官은 匡靖大夫判三司事 門下左贊成事에 이르렀다. 高麗忠肅 忠惠兩朝에 出仕하던중 當時 國政의 紊亂으로 誣告와 廢立이 無常한지라, 이에 公이 慨然히 李兆年 등과 같은 이를 調劑匡救하려 奮勵

하였으나 오히려 權臣의 奸壓으로 그 正義尙志를 挫絶당하였다. 元의 壓力으로 忠惠王이 揭陽縣에 流廢되던 중 岳陽縣에서 薨하심에 公이 悲憤慷慨속에 田里로 歸隱해버렸다. 뒤에 銀川君에 追封되었다.

十世 諱天柱 正肅公의 次子다. 文科에 及第하여 官이 匡靖大夫判司農事에 이르렀다. 恭愍王 十年 紅巾賊의 亂에 公이 上將軍으로서 都元帥 李芳實과 함께 博川에서 敵軍을 大破하고 다시 步騎四百을 거느리고 敵을 再破한 다음 安州城을 鎮守하던 중 敵의 不時來襲으로 公이 끝내 上將軍 李蔭과 함께 奮戰하다 殉死하였다. 白川府院君에 追封되고 忠顯公의 贈諡가 내려졌다. 뒷날 後孫中 文烈公憲先賢의 壬亂殉節이 이를 이으니 賢祖와 肖孫으로 一門忠烈의 正脈은 麗鮮兩朝에 실로 綿綿有光하였다.

十世 諱仁柱 正肅公의 三子다. 文科에 及第하여 官이 匡靖大夫門下左贊成事에 이르렀으나 恭愍王朝에 國政이 混亂하고 世道日非함에 이를 救亂扶義하러 憂道盡力하던 중 如意치 않음에 決然히 職을 辭하고 田里에 隱退하였다. 이는 곧 國無道에 出仕受祿을 부끄러워 하는 志士의 高節이라 여기서 그 節操는 兄 忠顯公의 殉節과 함께 더욱 一門同氣의 義理로서 昭然하였다.

十世 諱宗柱 正肅公의 四子다. 文科에 及第하여 官이 門下 侍中에 이르렀다. 恭愍王朝 妖僧 遍照가 王師가 되어 國政을 奸弄하고 良臣을 謀害함에 公이 慨然히 辭職하고 歸隱하였으며 以後 오직 鄉黨 風化와 綱常扶植을 위하여 一生을 그 憂道爲國의 潔介한 風度는 위로 三兄主와 그 軌를 같이 하였다.

十一世 諱琳 銀川君의 長子다. 文科에 及第한 이래 近四十年을 立朝하니 그 爲國의 功은 麗鮮 兩朝에 두루 屹然하였다. 禡王時에는 賀正使로서 明에가 당시 不信받던 高麗

의 國交를 正常化 시켰다. 그후 漢陽都元帥 兼 漢陽府尹이 되었고 다시 密直副使와 密直使 등으로 屢次 明에 往還하며 國交를 전담하여 오던중 李太祖 元年 七月 李太祖가 新王朝를 開肇함에 公이 建國啓稟使로서 如明하여 李太祖를 權知 高麗國事로 承認받고 아울러 國號奏請의 帝勅을 받음으로써 我朝建國의 基를 다졌다.

이에 純忠奮義翊戴開國功臣銀川府院君에 封해지고 이어 中樞院事를 거쳐 特進으로 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兼 經筵書雲觀事에 올랐다. 이는 오직 蒼生을 救하고 我東의 國基를 다지기 위한 爲國의 大義일 뿐 一身의 榮達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니 당시 公의 勳勞로 大陸의 對明關係가 이처럼 安着되지 않았더라면 以後 我東王朝의 命運이 과연 어찌하였으랴 실로 그 義理는 嚴正하고도 切實하였다. 太宗八年에 卒하니 나라에서 是 撤朝三日하고 康昭公의 贈諡가 내렸다.

十二世 諱末通이니 康昭公의 子다. 蔭仕로 嘉善大夫京畿道水軍節度使 兼 巡衛司 및 上護軍을 지냈다. 廉勤清白으로 陞資하여 水使를 出拜받았으나 잘못된 政局의 不幸으로 종래 流配地에서 高潔하지만 冤鬱하게 一生을 마쳤다.

이곳은 南漢江岸에 太白的 瑞精氣가 秀長한 驪州의 大神堂 일찍부터 康昭公의 孫 臨陂 公 諱添壽의 杖履之所로 由緒가 깊어온 곳 이제 여기에 窮遠達本한 白川 名門의 孝敬 慕先이 다시 焄蒿悽愴하니 猗歟盛哉라. 雲仍한 肖孫中에서 有德의 禹濬甫가 不佞에게 請文 커늘 粵昔龍蛇之役에 後栗堂 文烈公의 忠孝大節이 青蛇之變 我先子高祖考勉庵先生의 春秋大義로 一貫하는지라 先世義理와 淵源道學에 感佩되어 감히 사모로 銘을 代하느니

본래 起敬慕先은 由於事親이라 이에 景慕此祠에는 出孝의 大本이 뚜렷하고 다시 移孝思忠은 化家爲國의 正經이라. 여기서 名節家門의 起敬起孝는 邦內忠孝의 큰 風化를

이른다. 저곳 從容祠에는 我東忠節의 本源으로서 孝敬이 다시 昭然하니 이는 곧 綱常의 復明이요 主臣의 光復이라. 이에 肖孫과 士林이 함께 그 肅慕의 뜻을 담아 여기 貞石에 드리우니 望者는 矜式하리라.

潔介名門의 綱常이 깰이 仁邦의 風化속에 永遠垂昭할 것을……

檀紀四三一年 庚申槐夏 서울大學校授 哲學博士 崔昌圭 撰하고 士林의 協贊과 後孫의 온 精誠을 모아 建立하다.

3. 議政府贊成文貞公諱庸 神道碑文

舊稷山縣今天原郡笠場面可山里(舊兎山)는 眞寶趙氏諱文貞公의 曾孫 諱는 武行이요 官은 行法城津僉節制使 公始居後로 十六世相傳之地이다 謹按世譜에 文貞公의 諱는 庸이요 初名은 仲傑 字는 常中이요 號는 松亭 諱는 文貞이며 眞寶趙氏의 始祖이시고 公의 始祖諱는 之邁이요 本貫白川으로 麗朝에 官은 金紫光祿大夫左僕射參知政事諱는 恭和公의 十代孫이시며 通政大夫孝子公諱礎의 七代祖이시다 又按國史에 公은 高麗恭愍王甲寅二十二歲에 中殿試壯元하여 典校主簿 三司都事 鷄林府判官 司憲持平 成均司藝 禮曹摠郎을 歷任하시고 李太祖元年建國初에 以病으로 退居甫州(今醴泉郡)하시고 眞寶로 改本하시고 弟子教授에 힘쓰시다가 太祖七年에 諫議大夫로 被召하시여 定宗 太宗 世宗까지 四代를 歷任하여 經筵侍講官 司諫院左司諫 刑曹典書 檢校漢城尹兼成均大司成 世子賓客判漢城府事藝文提學 禮曹判書 藝文館大提學 右軍都摠制府事 議政府左贊成을 歷任하시고 世宗六年六月二十八日辛未에 卒하시니 享年七十二이시다 世宗께서 輟朝三日하시고

內官을 遣하여 吊問하시고 紙燭을 賻儀하시며 祭物과 祭文으로 致祭하시고 諡號를 文貞으로 贈하시니 道德博文曰文이오 清白守節曰貞이라 仁祖庚辰에 寒崗諱速鄭先生이 嘗曰趙松亭之學問行誼는 不可泯沒云故로 醴泉郡儒林이 立祠于公之舊居神堂村하여 尹別洞諱祥 權睡軒諱五福 鄭藥圖諱琢 三公으로 同配行祭하다가 鄉祠撤廢後에 至今은 設壇奉祭中이며 李退溪先生이 頌公詩에 性理淵源未易明에 襄陽稱道二公名이라 如何製述無傳後아 景仰高山獨感情(襄陽은 醴泉舊名이오 二公은 文貞公과 尹別洞)이라 하여 公의 높으신 道學으로 製述한 文이 無傳함을 恨歎하셨다 公及配位墓는 在廣州下道砂器店西坐原而尚未得傳故로 至今에 諸後孫이 先祖를 追慕하여 兎山里에 設壇立碑코자 後孫世澄이 公의 行蹟을 累月間王朝實錄에서 抄出하여 卑陋한 余에게 請하니 實로 先代로 恒時宿願而未就한 事를 而今爲之하니 其慕先勤勞之誠을 可知矣라 玆에 公의 道學文章을 追仰하고 또한 諸後孫의 爲先誠意를 感服하여 不顧僭越하고 敢히 銘을 述하여 曰恭惟하얏건대 賢公께서는 諡曰文貞이라 山川鍾氣시고 奎壁稟請이시다 道德이 崇高하시고 文章을 兼并하시여 至於著述하야는 操筆立成이시다 歷仕四朝하시여 位至上卿이라 藝文提學으로 兼任司成하시고 世宗之師로 理學尤明이시며 退居醴泉에 高弟滿庭하고 白川世族으로 改本眞城하시고 後孫世居는 兎山里名이라 孝友睦族하고 子孫繁榮이라 追慕設壇하야 謹揭碑銘이라 孝旌再側하니 壽資通政이라 公其俯鑑하사 宜降魂靈이라 從茲享祠에 千秋其永이어다 過此諸賢은 宜乎式敬이어다

檀紀四三百十年丁巳

月 日

後學 完山人 崔英憲 謹撰

十六代孫 璣澄 敬篆

同 孫 世澄 敬書

4、肅魏公諱胖神道碑銘 并序

此金川郡南距鶴樓山坐成而封者故麗朝密直副使復興君趙公衣履之藏夫人貞淑宅主鶴林李氏
附謹按公諱胖號松菴高麗忠惠王癸未生本朝 太宗元年辛巳十月二十七日卒壽六十一考諱世
卿贈輔社功臣正憲大夫祖諱何吏部尚書銀川君曾祖諱得珠同知樞密司使復興君高祖諱雙重號
休休堂門下常侍八世祖諱文胄兵部尚書厥有軍明紀于太常參知政事諱之遠其十三世遠祖也妣
楊氏判書伯厚女公之事行世遠無徵夷攷其史傳所載則禍王八年壬戌以版圖判書與鄭夢周如京
師賀正乙丑三月以密直副使與尹虎如京師謝恩丁卯十二月斬廉興邦家奴李光戊辰正月爲廉興
邦所誣擊獄已而得釋恭讓王元年己巳與順安君如京師告即位辨尹彝李初誣辛未十月爲彝初黨
所誣流于竹林壬申七月李太祖康獻大王祇膺駿命恭御寶國將稟定國號而天朝聞讒人言擬遣兵
問罪使者十輩皆不得準請而還太祖甚憂之問誰可使者僉曰前密直司使趙某長於中國備詰物情
非此人莫可太祖即其第諭之曰公之自靖於一身則善矣其於東方蒼生何公不得已起膺使命及到
京師 高皇帝召責之因命斬之公大聲呼曰願得一言死自古應天順人革命叛業非獨小國帝善其
對因問曰汝何以解華語對曰臣少遊中國曾見 陛下於脫脫軍中因歷陳當時事 帝下榻執手曰
卿乃朕之故人待以客禮曰脫脫若在朕何得至此初賜國號以和寧復思之曰朝鮮之稱自古美矣何
必改爲遂書朝鮮二字於手掌而送之蓋其回 帝心於危疑之際冀國勢於磐泰之安而爲萬世生靈
之福者豈曰少補使者其不恤去就少加俯仰即將相元薰斷不容讓與別人乃自反命不受爵祿即歸
白川別墅杜門却掃慙悔終身遺戒薄葬勿立表石以重吾過則其始終處義無愧與圖治諸賢同條共
貫或者不原其心規規於一時爲之末而視以爲褻趙一類人則殆亦淺之爲見耳後孫等相與言曰幽
誌顯刻葬法以來未之或廢固不可誘以是祖遺訓而昧沒於平生之志事也蓋伐石以記之既久問及

於余銘曰

趙出於銀川炳煥史策奕葉相承有卓名節傳至于公厥賊孔碩經濟之才魁奇之畧三膺專對重輕麗
室山河平波運丁百六衆皆趨營我心介石浩然西歸衡泌爲樂出疆事大非曰公職選以行權亦所斟
酌往而不返靡哲不惑公乃謙謙沒齒歛跡是致年終尚闕金石無曰不顯後人之式 (勉菴集卷二
十五參照)

正憲大夫行議政府贊政兼經筵特進官

月城 崔益鉉 撰

譯 文

이 침천군(金川郡) 남쪽에 떨어져진 학서산(鶴棲山)에 슬좌(戍坐)한 봉분(封墳)은 고(故) 여조(麗朝)의 밀림(密林) 부사 복흥군 조공(密直副使復興君趙公)의 의리(衣履_{옷과 신})가 묻힌 곳이다.

부인 정숙택주 계림이씨(貞淑宅主鷄林李氏)를 함장하였다.

삼가 살펴건대, 공의 휘는 반(胖)이고 호는 송암(松菴)이니, 고려 충혜왕 계미년(一三四三)에 나시고, 본조(本朝)의 태종 원년 신사(一四〇一)十月二十七日에 돌아가시니 수(壽)는 六十一세이시다.

아버지의 휘는 세경(世卿)인데, 보사공신(輔社功臣正憲大夫)에 증직(贈職)되고, 조부의 휘는 하(何)이니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은천군(銀川君)에 봉하였다. 증조의 휘는 득주(得珠)이니, 벼슬은 동지추밀사사(同知樞密司使), 봉호(封號)는 복흥군(復興君)이다. 고조는 휘가 쌍중(雙重)이고 호를 휴휴당(休休堂)이라고 하였으니, 문하상시(門下常侍)를 지냈다. 八대조의 휘는 문주(文胄)이니 병부상서(兵部尚書)를 지냈는데, 그 군공(軍功)은 태상(太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벼슬은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휘는 리(之遷)는 멀리 그의 十三대조이다.

어머니 양씨(楊氏)는 판서(判書) 백후(伯厚)의 딸이다.

다 하고는 그 당시의 일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황제는 탐(榻)에서 내려와 손을 잡고.

「경은 바로 내 친구였구려...」 하고는 객례(客禮) 客禮는 君臣사이거나 主客의禮 (로) 대접하면서.

「탈탈(脫脫)이 만약 살아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나」 하였다.

처음에는 (황제가) 국호를 화영(和寧)이라고 내렸다가 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이 옛날부터 아름다웠는데, 하필 고칠 것이 있었는가」 하여 드디어 조선(朝鮮)이라

는 두 글자를 써서 손에 쥐어 보냈다.

대개 불안하고 의심하던 때에 천제의 마음을 돌이키고 국세(國勢)를 튼튼하고 편안하게 높여서 만세(萬世)

|| 대대로 백성들의 복이 되게 한 것이 어찌 조그마한 보람이라고 하였는가

사자는 기록을 작성할 것도 없이 처신하여 장상과 원훈을 단호하게 버리고 사람을 시켜서 전하여 주고

스스로 왕명(王命)을 거슬러 작록(爵祿)을 받지 않고 배천(白川) 별장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쓰레질도 하지

않으며 「한양에서 사람에」 「거를한다」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유계(遺戒) 유언 (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루도록

하고 비석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자기의 허물을 무겁게 생각하였으니, 그의 시종(始終) 시종은 終까지 || (의) (義) (를) 처음에 처신한 것은 포은(圃隱)이나 다

은 (治隱) 治隱은 諸賢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음 (며, 같은 줄기를 함께 일관(一貫)한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의 바탕을 찾아 보지 않고 자기를 누레한 일을 한 때 한 것이라 하고, 배(裴) 배는 裴姓 (니

조(趙) 趙는 趙姓 (와) 똑같은 사람의 것처럼 보니, 또한 알은 사람의 소견(所見)이다.

후소들이 서로 말하기를 「유지(幽誌) 墓誌 (를) 현각(顯刻) 현각은 顯刻 || 하는 것이 장사를 지낸 이후로 무화한

는데 아마도 이것이 선조의 유훈이라고 믿게 되어 평생에 뜻하였던 일을 매물시킴을 불가하니, 돌에 기록하

자」라 하였다.

이미 또 나에게 부탁함으로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銀川에서 趙氏 나와 歷史에 빛나니 자손들이 어내려, 높은 節義 有名하다.

公의 때에 이르러서 亂賊의 偉勢가 甚히 컸어도.

經濟의 재능이라 知略도 뛰어났네.

세번 獨 처함의 王室을 重히 하고 自己 몸을 가버렸었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파도쳐서 國家는 厄運을 만났도다.

모두들 벼슬 구하나 내 마음은 돌과 같네.

浩然히 西歸하니 隱居를 즐기도다.

出國하여 事大하나 公의 本心은 아니었다.

가려서 權道를 行하나 스스로 헤아려 했네

가서 돌아오지 아니 하니, 현혹되지 아니했네.

공은 평생 謹守하여 終身도록 은거하였다.

이로서 終命하였으니 되 세운 비석 없었도다.

顯達지 못했다 말할수 없으니 後人이 공경할바다.

正憲大夫行議政府贊政兼經筵特進官

月城 崔益鉉 撰

一註一

生卒年代는 忠惠王復位辛巳에 生하고 太宗元年辛巳十月二十七日에 卒했음.

(王朝實錄太宗元年辛巳十月二十七日條)

5、承旨公諱瑞老墓表陰記

公姓趙 諱瑞老白川人復興君長子早魁司馬試連中丙科遂拜監察正言持平累遷吏兵郎官陞爲檢詳舍人司諫長于銀臺乙丑十一月二十八日卒于第享年六十四娶知議政府事延日鄭洪之女生六男一女長元壽司直次元福刑曹正郎次元立繕工判官次元禧漢城判尹次元祉副司正次元祐郡守女適司直李暉 (丙申補參照)

正統十二年丁卯八月 日 立石